

〈자기록〉과 〈한중록〉의 가능 세계와 서사성 연구

김보현*

〈차 례〉

1. 독자의 가능 세계 인식과 서사성
2. 〈자기록〉과 〈한중록〉의 가능 세계와 서사화
 - 1) 변증적 가능 세계
 - 2) 변론적 가능 세계
 - 3) 서사적 가능 세계와 서스펜스
3. 텍스트의 재목적화와 가능 세계

〈국문초록〉

독자가 고전을 ‘해석 가능한 텍스트’로 인식한다는 것은 고전을 해석 주체인 독자와 독자의 환경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의 가치를 해석의 시공간에서 해석 주체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가치를 부여하는 대표적 요소로는 ‘서사성’을 들 수 있다. ‘서사성’은 설화와 같은 장르적으로 규정되는 구체적인 서사 내에 존재하거나, 서사를 만들어내는 동력이나 전제가 되는 것이다. 텍스트에 내재된 서사성은 독자들이 텍스트에서 발견하는 서사적 요소이자, 가능 세계에서 발견하는 가치이다.

〈자기록〉과 〈한중록〉은 명명 방식으로 보자면 기록[錄]이다. 기록에도 마땅히 서사적인 요소인 행위자나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를 서사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해석자이다. 〈자기록〉과 〈한중록〉에 속한 서사적 요소에 대해, 해석자는 이를 같은 유형으로 또는 다른 유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의는 〈자기록〉과 〈한중록〉의 변증부와 변론부의 의미작용을 통해, 독자가 텍스트에서 도출하는 가능 세계의 특성을 살피고, 독자의 가능 세계가 고전의 재목적화에 기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초빙교수

□ <자기록>, <한중록>, 해석의미론, 가능 세계, 서사성

1. 독자의 가능 세계 인식과 서사성

최근 책을 ‘읽어주는’ 매체가 유행하고 있다. 책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 <책 읽어드립니다>와 같은 TV 프로그램도 있고, 책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다. 책의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변형하기도 하고, 능동적인 해독 활동이 필요한 글이라는 매체에서 수동적으로도 해독 가능한 소리라는 매체로 변형하기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대의 독자는 텍스트의 기존 목적을 독자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변형하는 재목적화와 같은 작업이나 기존의 매체에서 현대의 독자가 선호하는 매체로 변형하는 재매체화와 같은 작업을 통해,¹⁾ 고전을 해석 가능한 존재로 변형하면서 고전이 해석 가능한 존재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독자가 고전을 ‘해석 가능한 텍스트’로 인식한다는 것은 텍스트가 해석 주체와 그의 환경에 의해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텍스트가 독자의 사회적 소통이나 상호작용으로 재생산되면, 독자가 의미화한 새로운 구성물로 변형된다. 독자에게 해석되는 순간 텍스트는 이미 저자에게서 벗어난 독립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른바 ‘고전’이라고 명명되는 텍스트는 생산적 시공간에서 벗어나 해석적 시공간으로 이동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미를 발생시키고 해석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고전의 해석 가능성과 해석 가치는 발신자가 아니라 해석자에게 속한 것으로, 해석자가 해석자의 입장에서 해석자의 지식과 선택에 따라 해석하고자 하는 방향을

1) 이서라·정의준, 「역사드라마의 콘텐츠 재목적화에 관한 연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5-3, 2014, 100~102쪽.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해석의 시공간에서 해석 주체와 해석 참여자들에 의해 인정받는 요인들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해석의 가치를 부여하는 대표적 요소로 ‘서사성’을 제안한다. 본 논의에서 말하는 ‘서사성’은 서사장르로 규정되는 서사물 내에 존재하는 요소나, 서사를 만들어내는 동력 및 전제가 되는 것들을 말한다.²⁾ 피터 브룩스는 내러티브와 플롯 짜기에 대해 독서를 진전시키고 의미 지향의 진행을 약속하는 의미화의 실천으로 보면서, 독자의 능동적인 서사구성 활동에 대해 말한 바 있다. 독자 활동이 서사를 구성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는 무관하다. 말하자면 텍스트가 서사적 장르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독자가 텍스트에서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들은 독자에게 서사적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어떤 해석자가 텍스트에서 서사적 요소를 인식한다면, 서사는 가능 세계가 될 수 있고, 그들이 텍스트에서 서사적 가능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시공간에서 서사적 의미를 지닌 새로운 텍스트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가능 세계에 대한 논의는 에코, 돌레젤, 라이언 등에 의해 논의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능 세계는 허구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허구 세계가 실제 세계와 닮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 전제된 세계라고 보는 것이다. 이때 가능 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라 자주적인 세계이면서 실제 세계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도출되는 세계라고 본다.³⁾ 서사의 구성요소를 단순화하면 인물들과 행위들, 특정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인물의 변화, 그리고 인물의 행위나 변화가 일어나는 시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갖추었다고 서사로, 나아가 새로운 서사물이나 매체로 구성·재구성되지는 않는다. 특히 고전들

2) 피터 브룩스, 『플롯 찾아 읽기』, 강, 2011, 13쪽.

3) 카를라 주어캄프, 권선영 옮김, 『내러티브와 가능세계이론: 대안세계로서 내러티브 텍스트』,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18, 228~230쪽.

이 새로운 매체로, 새로운 서사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필자는 고전을 서사 세계로 변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능 세계의 구성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포터 애벗은 산문 서사에는 해석의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틸과 덜 읽기, 더 읽기와 같은 해석자의 능동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⁴⁾ 그러한 유동적인 부분 때문에 고전으로 명명되는 것들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변형은 개별적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다른 고전과 함께 상호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현재적 의미를 지닌 새로운 텍스트로 재생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변형이든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읽기의 결과물로서의 텍스트 생산은 고전 텍스트를 원천 텍스트로 활용하는 문화적 변형의 원동력이 될 것은 분명하다. 최근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원천 텍스트들은 대체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출발하여 거시 콘텐츠의 내용을 형성하는 하위의 미시 콘텐츠를 거느리거나, 미시 콘텐츠들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새로운 텍스트를 재생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에서 서사 세계를 구성하게 하는 요소를 가능 세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사실 소설과 같은 전형적인 서사 텍스트의 경우에 독자는 텍스트를 ‘소설’이라는 전제 위에 읽기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덜 읽든 더 읽든, 이 텍스트를 서사적인 텍스트로 재목적화하는 읽기는 당연한 해석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서사적인 텍스트의 경우, 읽기에 서사성을 반드시 전제한다고 할 수

4)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문학과 지성사, 2010, 163~181쪽, 231~243쪽.

필자는 ‘덜 읽거나 더 읽기를 통해 틸을 만들거나 틸을 매우는’ 능동적인 읽기가 바로 독자가 가능 세계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독자가 실제하는 현실 세계를 인지하지 않는다면, 실제화되지 않은 가능 세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실제하는 현실 세계 그대로 독자가 가능 세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독자가 텍스트를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과 가능 세계를 조직하는 능력을 동원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도출할 수 있다.

는 없으므로, 이때 발생하는 서사성은 텍스트를 읽는 사람으로부터 도출되는 서사성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형적인 서사 텍스트로 유형화되지 않는 텍스트를 선택하여, 이 텍스트에서 서사적 의미적 단위들과 작용방식을 살피고 서사적 단위들을 활성화하는 요인을 살핀다면, 도출되는 가능 세계와 구현되는 서사성의 정체가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록〉과 〈한중록〉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⁵⁾ 〈자기록〉과 〈한중록〉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여성 회고록이다. 이 텍스트들은 전형적인 서사는 아니지만, 서사적으로 재목적화될 수 있는 텍스트들이다. 그러나 두 텍스트가 같은 방식으로 재생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두 텍스트에서 재현될 수 있는 가능 세계의 차이를 분석하여 독자가 구성하는 서사 세계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2. 〈자기록〉과 〈한중록〉의 가능 세계와 서사화

어떤 독자를 가정해보자. 이 독자의 눈앞에 〈자기록〉과 〈한중록〉이 놓여 있다. 만약 이 독자에게 서사적인 텍스트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선택할까? 아마도 〈한중록〉일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텍스트 자체의 특성이다. 텍스트에 서사화가 가능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고, 어떤 독자가 어떤 텍스트를 서사화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텍스트가 지닌 서사적 가능성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우는 것이다. 둘째는 독자의 능동적인 해석이다. 동일한 유형의 구성요소라도 서사를 구성하겠다는 독자의 선택이

5)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자기록〉의 경우에는 김경미가 역주한 『여자, 글로 말하다, 자기록』(풍양 조씨 지음, 나의 시간, 2014)이고, 〈한중록〉의 경우에는 정병설이 역주한 『한중록』(혜경궁 홍씨, 문학동네, 2010)인데, 논문에는 번역문만 제시하였다.

나 의지가 텍스트를 서사적인 것으로 읽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요소든 서사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이유와 차별화될 수 있다. 셋째는 텍스트를 서사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독자의 환경이다. 〈한중록〉은 널리 알려진 충격적인 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재생산된 2차 텍스트가 많다.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나 접근도의 차이가 독자로 하여금 〈자기록〉과 〈한중록〉의 서사성을 달리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해석의미론에서 제시하는 의미 산출의 전제와 연관된다. 해석의미론은 해석자의 능동적인 해석 활동이 존재하는 텍스트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텍스트 의미론이다. 이는 해석 주체와 텍스트의 의미적 단위들, 텍스트가 요구하는 해석적 전략, 해석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도출하는 방식이며, 텍스트에서 해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미의 발산 방식을 추적하고, 해석자가 해석 요소들을 선택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가능한 방식을 찾는 것이다.⁶⁾ 이는 앞서 제시한 세 요인, 텍스트, 해석자, 해석자의 환경을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적으로 살피는 관점과 상통한다. 해석의미론에서 텍스트의 의미 산출은 항목에 따라 4분화된 의미영역에서 실현된다고 보는데,⁷⁾ 이번 논의에서는 의미영역 중 서사적 의미를 요소와 관련하여 행위자들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변증부와 행위자들의 태도에 초점을 두는 변론부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다.

1) 변증적 가능 세계

해석의미론에서 변증적 의미는 인물과 인물의 관계, 행위와 행위의 결합, 사건과 사건의 연쇄를 통해 만들어지는 의미화 과정을 지칭한다. 따라

6) 김보현, 「해석의미론과 인지주의적 독서과정」, 『기호학연구』 62, 한국기호학회, 2020, 38~40쪽.

7) 라스티에의 각 의미부의 특성은 라스티에Rastier(1997), 김보현(2012)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 변증적 가능 세계는 인물들, 행위들, 사건들로부터 ‘구성 가능’한 서사적 세계를 말한다. ‘구성 가능’에는 ‘구성 불가능’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여기서의 가능은 말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을 의미한다.

〈자기록〉과 〈한중록〉은 개인의 삶에 대해 회고한 기록이다. 〈자기록〉은 풍양 조씨가 스무 살 젊은 나이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시가 식구, 남편, 자신, 친정 식구 등과 얽힌 자신 삶에 대해 집필한 회고록으로, 서문과 본문, 제문 형식의 발문, 조씨 언니의 편집후기가 함께 묶여 편찬되었다.⁸⁾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가 영조, 사도세자와 세자의 죽음, 정조, 자신, 그리고 자신의 친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기록한 것을 묶은 것이다. 〈한중록〉의 각 편들은 다른 시기에 지어졌으며, 다른 주제와 의도를 지니는데, 이들을 묶어 하나의 회고록으로 명명한 것이다.⁹⁾ 각 텍스트는 각각의 저자들이 자기 자신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므로 내용상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히 없고, 기록 기간이나 기술 방식에서도 구별된다. 〈자기록〉의 경우는 주요 화제에 대해 그 경험과 감회를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비해, 〈한중록〉의 경우는 여러 회고록이 통합된 것이어서, 어떤 회고록은 〈자기록〉처럼 경험과 감회를 순차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어떤 회고록은 가장 중요한 화제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록〉에 비해 〈한중록〉은 여러 회고록을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한 〈자기록〉은 남편이 죽고 난 1년 후 작성한 기록이 주를 이루고, 〈한중록〉은 몇 년에 걸쳐 60년간의 삶을 여러 차례 기록한 것을 묶은 것이므로 다루는 사건도 많고,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여러 번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두 텍스트가 이러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두 텍스트에 등장하

8) 풍양 조씨(豊穰 趙氏: 1772~1815)는 1791년에 남편을 병으로 잃고, 1792년 〈자기록〉을 작성한다.

9) 〈한중록〉은 〈閑中錄〉, 〈恨中錄〉, 〈한동록〉, 〈한중록〉, 〈한동만록〉, 〈혜경궁읍혈록〉, 〈읍혈록〉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정은임, 『한중록 연구』, 42~46쪽.

는 행위자 유형은 매우 유사하여 텍스트의 변증부적 의미 요소와 의미 도출 과정은 유사할 수 있다.

(1)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충효로 이름난 가문이요, 법도 있는 집안이니 선조 대부터 충효를 갖추고 우애가 두터웠다. 우리 아버지는 집안의 가르침과 타고난 성품에다 더하여 하늘이 내린 효행이 지극하여 평생 효성과 우애를 근본으로 삼으셨다. … 할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다만 할머니만 모셨는데, 아버지는 지극한 효심으로 들고나며 받드는 데 몸이 가벼우셨다. … 아버지는 일마다 보호하여 병세가 호전되기를 하늘에 간절히 비셨다. 그러나 하늘의 도가 살림이 없고 신명이 돕지 않아 위독해지시자 아버지는 황황히 칼을 잡고 단지지혈하였으나 할머니가 이미 춘추가 높고 정력이 소진하였으니 어찌 능히 회복하시리오. <자기록> 15~17쪽¹⁰⁾

(2)-1 나의 할아버지이신 정헌공께서는 … 증조할아버지이신 첨정공께서 사랑하신 둘째 아드님으로 안국동에 새집을 짓고 분가하셨다. 살림집은 비록 재상집처럼 빛났으나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아, 할아버지께서는 선비로 계실 때부터 심하게 가난하였다. … 생각해보니 이는 다 큰할아버지께서 당신 아우님을 사랑하신 깊은 뜻이었다. 우리 집안사람 누가 큰할아버지의 뜻에 감탄하지 않았겠는가? … 경신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애통해하시는 모습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밤낮으로 힘을 다해 3년 안에 사당을 짓고, 삼년상을 마치자마자 즉시 할아버지 위패를 사당에 모셨다. <한중록> 24~28쪽

(2)-2 아버지께서 효성이 지극하여, 1740년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애통하심과 계모부인 섬기심이 지극하니라,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우님 사랑하고 가르침이 당신 아드님과 다름이 아니 계시니라. <한중록> 163쪽¹¹⁾

10) 풍양 조씨 지음, 김정미 역주, 『여자, 글로 말하다, 자기록』, 나의 시간, 2014. <자기록>의 인용문은 같은 자료이므로, 이하 인용에는 서지를 생략하고 쪽수만 표시하였다.

11) 인용문 (2)-1은 이선형이 옮긴 <한중록>(혜경궁 홍씨, 『내 붓을 들어 한의 세월을

제시된 두 인용문 중 첫 번째는 〈자기록〉의 일부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한중록〉의 일부이다. 이 두 부분은 자신의 집안과 아버지에 관해 서술하는 부분으로 각 텍스트의 시작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자기록〉과 〈한중록〉은 앞서 언급한바, 텍스트는 가문의 구성원들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출발하여, 저자 개인의 이야기로 나아간다. 따라서 제시된 인용문을 이어서 언급하는 대상은 마땅히 어머니이며, 형제들, 친지들 등을 언급한다. 〈자기록〉의 풍양 조씨나 〈한중록〉의 혜경궁 홍씨가 가족에 대해 제시하는 부분은 일견 유사하다. 가문의 위상과 궁지, 부모와 형제, 그 밖의 식솔들과 함께한 생활에서 느낀 것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넘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인물들 간의 관계는 보통 회고록에서 언급되는 관계들과 유사하여, 관계 양상은 화목하여 친화적이기도 하면서 갈등하여 대립적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록〉이나 〈한중록〉 모두 결혼하기 이전에는 자신과 관련된 극적인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두 기록 모두 결혼 후 시집살이를 하면서 각 텍스트를 기록하는 동기가 발생한다.¹²⁾

- (3) 내 비록 죽어 따르지는 못하나 생혈로 행여나 목숨을 늘리는 힘이 있을까 하여 급히 두어 걸음을 물러나 돌아서서 감추었던 칼을 빼 왼쪽 팔목을 급히 찔렀으나 마음이 황황하고 손이 떨려 능히 꿰뚫지 못했다. 다시 찌르려는데 아버지가 급히 칼을 빼앗고 시할아버지가 이끌어내 ... 잠깐 정신

적는다, 한중록』, 서해문집, 2003)이고, (2)-2는 정병설이 옮긴 〈한중록〉(혜경궁 홍씨, 『한중록』, 문학동네, 2010)이다. 논문의 분석 자료는 정병설이 옮긴 〈한중록〉인데, 정병설의 〈한중록〉에는 이 부분이 달리 서술되어, 이선형의 〈한중록〉도 함께 발췌하였다. 이후 인용은 정병설의 〈한중록〉이므로 서지를 생략하고 쪽수만 표시하였다.

- 12) 〈한중록〉에서 ‘사도세자 사건’은 다른 편으로 분리되어 자세히 기술되었으며, 〈자기록〉에서 남편의 죽음에 대한 사건은 본론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중록〉은 60년간의 삶에 대한 기록이므로 기술 내용의 기간도 길고 기술되는 사건도 많은 데 비해, 〈자기록〉은 20년간의 삶에 대한 기록이므로 〈한중록과 비교하면 기술되는 기간도 짧고 기술되는 내용도 적은 편이다.

이 돌아옴을 어찌 길게 믿으리오마는 생전에야 어찌 오래 병자 곁을 떠나 있으리오. … 이 광경을 한번 보니 창자와 애가 함께 끊어지고 가슴이 막혔으나 스스로 굳게 진정하고 부드러운 얼굴빛을 하고 가까이 나아가 손을 잡고 물었다. “그사이 어떠합니까?” 남편은 문득 손을 밀치며 말했다. “나는 그런 사람과는 말을 아니 하노라.” <자기록> 98~99쪽

이윽고 고복으로 인하여 일시에 곡성이 하늘에 가득하며 누군가 내 머리를 풀어헤치니 이때 내 불의에 하루 저녁에 하늘이 무너지는 변을 당하여 온몸이 깨어지듯 친지가 망망하고 심혼이 아득하여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였다. 잠깐 사이에 친정아버지가 나를 안아 내 침소로 들어와 계셨다. 내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어이없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해 능히 울음도 울지 못하고 입속으로 다만 “이것이 세상이나, 꿈이나, 차마 이 어인 일인가.” <자기록> 105쪽

(3)은 <자기록>의 가장 극적인 장면으로, <자기록>에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팔목에서 피를 내는 장면, 남편의 죽음을 확정하는 장면을 부분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자기록>의 화자는 병든 남편을 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역부족이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피로써 남편의 목숨을 연명해보고자 시도하는데, 이 시도를 자결로 오해하여 가족들이 저지하고, 남편이 이를 알고 화를 낸다. 조씨는 대화를 마지막으로 남편과 영영 이별하고, 고복으로 남편의 죽음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4) 경모궁의 병환 증세는 종이에 물이 젖어 번져나가 듯하여, 부왕께 문안 인사도 더 드물게 드리고, 수업도 일정하게 못 하시니라. 마음병으로 오랫동안 신음하는 일이 잦아 병으로 망가진 모양이 되시니 <한중록> 61쪽
“동궁을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하니, 빈궁도 더이상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라. 위에서 본집으로 나가라 하시니 가마가 들어오면 나가시고, 세손은 남녀를 들여오라 하였으니 그것을 타고 나가시리이다”하시니 서

로 붙들고 망극 통곡하니라. … 나는 가마에 들 제 기운이 막혀 인사를 모르니, 윤상궁이 주물러 겨우 명은 붙었으나 오죽하리오. 〈한중록〉 133~137쪽

20일 오후 세 시쯤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니, 경모궁께서 평소 그것을 두려워하시더니, 이 무렵 돌아가시니라. 나는 차마차마 그 모습을 헤아리지 못하니, 그 땀 내 마음이 굵어 죽으려고도 하고, 깊은 물에 들고도 싶고, 수건을 어루만지며 목을 맬 생각도 하고, 칼을 들기도 여러번 하되, 악한 성격으로 강한 결단을 못하였으나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미음이나 냉수조차 먹은 일이 없으며, 능히 지탱은 하였더라. 〈한중록〉 140쪽

성모궁 상례에 신하가 상복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니라. 제사를 담당하는 관원이나 내관들도 모두 동궁의 상례에 마땅한 상복을 입지 않고, 삼년상이 끝난 다음 백 일간 입은 옥색의 천담복을 입으니 삶기가 이를 것 없더라. 〈한중록〉 143~144쪽

인용문 (4)는 사도세자의 병에 대한 걱정,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폐위된 후 혜경궁이 사가로 쫓겨나가는 부분, 사도세자의 부음을 듣는 부분, 사도세자의 장례를 치르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의 병에 관한 걱정이 매우 자주 등장하는데, 세자의 병이 중할 때는 사람을 죽거나 자결하려고 하여, 혜경궁 홍씨가 이를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자주 나타난다. 이어 인용한 부분은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극에 달하여 사도세자가 영조에게 부름을 받고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히고 죽음을 맞는 장면으로, 여러 콘텐츠에서 〈한중록〉을 다룰 때 빠짐없이 언급하는 부분이다. 아마도 대다수 독자들이 〈한중록〉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갈등의 최고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상에서 비교한 〈자기록〉과 〈한중록〉에서 두 텍스트가 지니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제외하면 어떤 텍스트가 더 서사적이고 서사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특히 두 텍스트에서 관련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연계하는 방식은 매우 유사하여, 변증부적 차이를 통해서 두 텍스트의 서사적 차이를 명확히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두 텍스트가 2차 텍스트나 서사 텍스트로 변용되는 이유는 단지 텍스트 외적인 문제, 이를테면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의 기록이라는 점 때문인가. 필자는 그 이유를 서술자에 대한 독자의 기대도 중대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2) 변론적 가능 세계

서사적 의미 해석에서 변론적 가능 세계는 서술자의 태도에서 도출되는 의미와 관련된다. 서사는 행위자와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야기하는 주체인 서술자로부터 생산되거나 변형되는 의미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서술자의 태도나 서술 방식에서 서스펜스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독자가 서술자를 믿을 수 없다면, 서술자의 발화 내용을 의심한다면 이야기 진행이나 종결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스펜스도 확대된다.¹³⁾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혹은 비협조적인 서술자는 독자에게 모두 다 진실이기도 하고, 아무 것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¹⁴⁾

〈자기록〉과 〈한중록〉을 어떤 서사로 구현해본다고 해보자. 독자가 어떤 텍스트의 서술자를 신뢰하고 어떤 텍스트의 서술자를 불신할 것인가. 지금까지 두 텍스트를 연구하는 일부 관점에는 텍스트의 주요 행위자가 실존 인물로서 이들의 기록에 대해 ‘진실의 여부’를 고려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텍스트의 진실에 대한 문제는 텍스트의 가치나 장르 문제를 다루는 연구나, 당시 여성의 생활이나 사상, 위치,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적 관계를

13) H. 포터 애벗, 『서사학 강의 - 이야기에 관한 모든 것』, 문학과 지성사, 2010, 150~153쪽.

14) H. 포터 애벗, 위의 책, 152쪽.

추론하는 등 다수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기록〉은 텍스트에 드러나는 시가족의 행위나 이에 대한 조씨의 평가, 자신의 행위와 스스로의 평가가 개인적 욕망이나 사회적 욕망 때문에 경험을 변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¹⁵⁾ 〈한중록〉은 기술된 내용이 있는 그대로의 사건을 기술한 것인가, 작자인 혜경궁 홍씨가 경험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 등과 같은 의문을 품을 수 있다.¹⁶⁾ 결국 텍스트의 진실성은 서술자, 서술자로부터 이야기된 세계, 이야기 속 인물, 이야기 속 인물의 세계 등 텍스트 내에서 구현되는 서술자의 태도와 서술자에 대한 믿음의 여부, 말하자면 변론부의 가능 세계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서술자는 텍스트 세계 전체, 관련된 대상, 자신을 포함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인식을 양태로 표현하고, 독자는 텍스트에 나타난 다양한 발신자 - 실제 저자, 내포 저자, 서술자, 행위자들의 세계나 대상에 대한 태도를 독자 자신의 인지작용에 기대어 텍스트의 양태적 요소로 선택하고 해석한다. 말하자면 감정적 상태나 세계 인식을 드러내는 텍스트 내·외적 주체들에 대한 ‘믿음’의 정도, 특히 서술자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 변론부 가능 세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15) 김경미, 『〈자기록〉의 저자 풍양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회, 2014, 121~146쪽.

김보현, 『〈자기록〉, 삶과 죽음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267~296쪽.

박옥주, 『풍양조씨의 『즈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07~318쪽.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 서사-『즈기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239~271쪽.

16) 이화형, 『〈한중록〉의 극적인 특성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2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251~278쪽.

정은임, 『한중록 연구』, 국학자료원, 2013.

정병철, 『〈한중록〉의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171~198쪽.

최기숙, 『자서전, 전기, 역사의 경계와 언술의 정치학-한중록에 관한 제인적 독법』, 『여/성이론』 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122~139쪽.

는 것이다.

(5) 남편의 숨이 끊어지던 날 내 마땅히 뒤를 좇아 혼백이 같이 놀고 관이라도 쌍으로 돌아가면 첫째 늘 특별히 알아주던 마음을 갚고, 둘째 나의 하늘에 닿을 듯 원통한 설움을 잊고, 셋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함께 살고 함께 돌아가니 불행 중 다행이었으리라. … 성복한 뒤 친정아버지가 권도를 따르라 일컬으며 애써 이르시기를 육즙을 먹으라 하시니 … 그러나 내 이미 평생 신세와 남편이 중히 알아줌을 생각하지 않고 양가의 부모를 위하여 살기를 정했으니 이러한 작은 일을 고집하면 이는 먼저 뜻을 어기는 것이라 이에 뜻을 받들어 성복한 이튿날 쌍동에서 가져온 육즙을 시어머니에게 올리고 나도 마셨다. 아아, 내 어찌 이토록 모질고 무상할 줄 알았으리오. <자기록> 118~119쪽

<자기록>의 서술자는 자신의 의지와 현재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녀가 ‘실천하고자 한’ 삶과 현재 ‘실현되고 있는’ 삶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조씨는 남편의 숨이 끊어지던 날 함께 죽고자 한다. 그 죽고자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조목조목 제시하며 따라 죽고자 하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조씨의 이러한 죽음에 대한 태도는 “성복한 이튿날” “육즙”을 마시는 것을 기점으로 돌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의 살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스스로도 “모질고 무상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단순히 ‘죽지 못해 산다’가 아니라 ‘살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자의 양태 변화에 대해 어떤 연구자(독자)는 이데올로기에 순종적인 것으로, 어떤 연구자(독자)는 이데올로기에 저항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유교 이데올로기에 순종적인 여성상, 이데올로기에 저항적인 여성상으로 평가하는 상반된 결과는 독자가 <자기록>의 서술자 조씨의 태도에서 어떤 쪽을 초점화하여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텍스트에 대한 평가나 가치 또한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6) 오랜 세월이 흘러 그때의 흔적을 아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 사이에 이익을 욕심내고 재앙을 즐기는 무리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소문을 어지럽혀 이렇게 말하였다. “경모궁은 병환이 없었는데, 영묘께서 거짓말을 듣고 그런 처분을 하셨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영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신하들이 말씀드려 이런 슬픈 모양이 되었다.” … 헤아려 생각해보건대 이 일을 두고 영묘를 원망하고 경모궁의 병환이 아니라 말하며 신하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비단 본사의 실제 모습을 잃을 뿐 아니라 삼조에게도 다 망극한 일이다. 이것만 바로 잡으면 이 의리를 분간하기 무엇이 어렵겠는가. 〈한중록〉 92쪽

(6) 〈한중록〉의 서술자 혜경궁 홍씨는 임오화변(사도세자의 죽음)의 원인이 세자의 ‘병’으로 인한 기행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적는다. 세자가 병이 없었는데, 영조가 거짓말을 듣고 죽게 했다거나, 신하들이 세자를 그렇게 죽게 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은 “실제 모습을 잃는” 일이므로 이를 명확히 분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혜경궁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태도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는 이러한 혜경궁의 태도를 ‘참-거짓’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평가나 판단, 특정한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욕구로 해석할 수 있다. 혜경궁 홍씨가 사태에 대해 ‘실제 모습(참/거짓)’으로 바로잡겠다고 하지만, 임오화변에 대해 “신하에게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판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평가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아버지 흥봉환의 책임 즉 자신의 가문에 죄를 묻는 것을 막겠다는 서술자의 ‘욕구’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자기록〉이나 〈한중록〉의 서술자의 태도에 대해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에 대해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판단에는 독자가 지닌 여러 정보들이 개입될 수 있겠지만, 그 요인에는 서술자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포함된다. 텍스트를 작성한

저자에 대한 독자의 인식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서술자의 관점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서술자와 대립적 관계에 놓인 인물의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다. 말하자면 독자는 서술자가 말하거나 경험한 ‘사건’을 자신의 지식이나 믿음을 토대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독자의 재해석 근거는 텍스트에 제시된 서술자의 경험적 세계와 독자가 이를 통해 만들어내는 개연적 세계, 즉 가능 세계에서 도출된다. 독자가 어디까지 서술자를 믿고, 서술자의 발화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나,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텍스트에서 새로운 실제 세계를 기대하는 것도, 독자가 지닌 지식과 인식으로부터 형상화된 가능 세계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텍스트의 발화 가능한 존재들, 서술자나 행위자들의 세계 인식이나 세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수용의 범위도 독자가 만들어내는 가능 세계에서 비롯된다는 가정을 수용한다면, 독자가 형상화하는 가능 세계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2차 텍스트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

3) 서사적 가능 세계와 서스펜스

결국, 서사적 가능 세계는 서술자에 대한 신뢰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독자에 의해 구성된다. 독자가 서술자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 제시된 정보에 대한 믿음은 텍스트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킨다.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도나 텍스트 외부와 관련되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텍스트를 이미 읽었으나 숨겨져 있거나 발견되지 않았다고 불만한 사건 존재를 기대한다면, 독자는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서사적 서스펜스를 연출하게 된 것이다. 애벗은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서스펜스는 ‘독자로 하여금 주인공에게 공감하게 하고, 주인공의 적대자에게 복수심도 갖게 하고, 가슴을 졸이게 하며 종결을 지연시킨다고 한다. 더불어 독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텍스트가 독자에게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⁷⁾ 그렇다. 텍스트의 서스펜스에 놀아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독자 자신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자는 스스로 텍스트를 덜 읽고 더 읽으므로 자신만의 가능 세계를 구성하고, 그러한 가능 세계에 대한 기대가 새로운 서스펜스를 형성할 수도 있다.

〈자기록〉에서 서술자의 살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록〉의 텍스트적 종결은 남편의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 독자들은 남편의 죽음을 조씨의 죽음으로 나아가 서사적 결말로 인지하게 될 것이다. 〈자기록〉의 서사적 결말을 연장하려면 풍양 조씨에게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나 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중록〉의 종결은 남편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넘어선다. 정병설은 〈한중록〉을 3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1부 내 남편 사도세자, 2부 나의 일생, 3부 친청을 위한 변명이다. 시기적으로는 2부 나의 일생이 가장 먼저 지어진 회고록인데, 이를 2부로 한 이유가 현대 독자들이 가장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방식으로 배열하고자 했기에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편집했다고 한다. 현대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시작에 배치함으로써, 흥미롭게 읽기를 바란 것이다. 다른 시기에 쓰인 각 편에서 다루어지는 ‘사도세자’의 죽음은 1부에 비해 미미하다. 2부와 3부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은 요약적이면서, 영조와의 대면, 세자의 친모인 선희궁, 시누이 화완 옹주, 정조, 그리고 가문의 문제와 함께 제시되지만, 1부에서 전면적이고 상세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다루는 것에는 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도세자의 죽음은 〈한중록〉을 이해하기 위한 필연적인 화두이다. 이 사건 없이는 〈한중록〉을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중록〉의 서술자 혜경궁은 사도세자가 죽은 뒤에 발생한 대다수의 사건도 사도세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독자들도 마찬가지다. 독자들은 〈한중록〉을 읽는다고 말하지만, 언급하는 장면

17) H. 포터 애벗, 앞의 책, 170쪽.

은 인용문 (7)와 같은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병설의 〈한중록〉으로 말하자면, 2부와 3부는 독자의 안중에 없는 것이다.

(7) 대조께서 엄히 말씀하셨다. … 내가 어찌 잠시나마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었겠는가.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하자 옆에 있던 사람이 빼앗아 뜻대로 못하였다 …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대조께서 두드리는 소리와 소조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다. “아버님, 아버님,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마소서.” 내 간장은 마디마디 끊어지고 눈앞이 캄캄하니 가슴을 두드린들 어찌하겠는가. 당신의 용맹스러운 힘과 건장한 기운으로, 아버님께서 “궤에 들어가라.” 하신들 아무쪼록 들어가시지 말 것이지 어찌 들어가셨는가. 처음에는 뛰어나오려 하다가 아가지 못하여 그 지경에 이르니, 하늘이 어찌 이렇게 하셨는지, 만고에 없는 설움뿐이다. 〈한중록〉 202쪽

〈한중록〉의 독자들은 기록 주체인 혜경궁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혜경궁 서사의 주요 인물인 “사도세자”에 시선을 주목한다. 혜경궁인 자신의 이야기, 자신 가족인 부친이나 모친, 형제에 대해 말하고자 하지만 독자에게 그들은 주변적 인물일 뿐이다. 혜경궁이 영조의 며느리이자, 텍스트에 언급된 가장 흥미롭고 기이한 사건이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의 죽음”이며, 250년 남짓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영조가 세자를 죽인 이유이다. 이러한 까닭에 〈한중록〉은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는 ‘키워드’로 작동한다. 〈한중록〉에 관심을 두는 다수의 독자들은 〈한중록〉을 혜경궁이라는 서술자가 기술한 역사적 사건으로, 혜경궁은 텍스트의 서술적 주체로 인식한다. 독자들의 목적은 〈한중록〉이라는 혜경궁 흥씨의 목소리를 통해 사도세자와 영조의 갈등과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들으면서, 사건의 전말을 판단하고, 죽음의 서스펜스를 풀어

나가는 데에 있는 것이다.

독자는 ‘사도세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등과 같은 〈한중록〉의 서술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가능 세계를 재현해볼 수도 있고,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지 않았더라면’과 가정을 전제로 실제 사건을 뒤집어서 상상해볼 수도 있다. 〈한중록〉의 이러한 특성은 독자들이 〈한중록〉의 텍스트 내적 서술자를 독자가 구현하는 새로운 서술자, 새로운 사건을 재생산하는 등, 가능세계를 다시 허구세계로 만들 수 있게 한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 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어떻게 기술하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텍스트가 진실을 담고 있는가, 새로운 가능 세계는 존재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이다. 가능 세계에 대한 해석자의 상상력은 〈한중록〉을 회고록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한중록〉은 역사적 인물인 영조나 사도세자를 실제적 존재이면서도, 허구적 존재로, 역사적 존재이면서도 개인적 존재로, 공적 존재이면서도 사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한다.

(8) 눈을 뜨면 밝은 세상과 어지러운 소리 스스로 괴로워 밤낮으로 잠겨 있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시신이 되었으나 한낱 위로할 것이 없으니 유유한 이 세상을 어찌하리오 나의 남은 해를 생각하니 푸른 머리와 붉은 얼굴이 시들 날이 멀어 남은 세월이 일천 터럭을 묶은 것 같으니 어찌 견디어 살리오. 그러나 사세事勢는 이미 끝났으니 하여금 하릴 없으나 잠깐 머물다가는 세상에 사람의 수명은 백세가 되지 않으니 나의 세상이 또 얼마리오. 〈자기록〉 124쪽

이와 달리 〈자기록〉에서 일어나는 서스펜스의 결말은 텍스트 끝에 명확히 제시된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시신으로 규정하고, 사세가 끝났다고 기록한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자기록〉 극적 장면 또한 〈한중록〉 못지않게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자기록〉으로 서사 세

계를 구성하지 못할 것도 아니겠지만, 이러한 세밀하고 사실적인 묘사만으로, 독자가 창조적인 서사 세계를 도출하는 하는 것은 역부족인 듯하다. <자기록>은 대다수 독자들이 여성의 삶, 사상, 감정 등을 접할 수 있는 자서전적 회고록이나 수필 혹은 일기로 인식한다. 이처럼 <자기록>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독자가 드문 이유는 <자기록>의 서술 내용이 서술하는 화자의 갈등에 대해 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록>은 <한중록>에 비해 독자가 세계를 만들어 낼 만큼의 틈을 제공하지 않는다. 남편의 죽음을 지키고, 투생의 삶을 선택한 여성은 애처롭고 안타깝지만 <한중록>처럼 독자가 재구성할 만한 서스펜스를 내재하지는 못한 것이다. <자기록>의 이러한 개인 서사가 <한중록>처럼 확장성을 지닌 가능 세계를 지니기 위해서는 해석자들의 상상력이나 지식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해석자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기록>에서 새로운 세계를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텍스트는 이미 종결된 서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거대 서사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신화적이고 역사적 존재에 인간성이나, 개인적·사적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독자들의 금금증을 폭발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개인 삶에 대한 미시적 역사는 거시적인 역사와 결부되지 않는다면 단순 기록이라는 위상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하고자하는 욕망, 텍스트를 가능 세계로 확장하고자하는 독자의 욕망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두 텍스트를 서로 다른 해석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 <자기록>과 <한중록>에 기술된 사건들은 경험적 주체이자 기록 주체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중대한 경험일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읽는 독자에게 <자기록>의 경우는 어떤 필부의 안타까운 삶에 관한 기록으로, <한중록>의 경우는 엽기적이고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건으로 읽히는 것이다. 그러한 읽기가 <한중록>을 일부분 발췌해서 읽은 것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일반적으로 서사적 의미작용은 의미작용이 인물과 행위가 통합되어 특정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설화나 소설과 같은 텍스트에서 활발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텍스트에는 인물과 행위, 이들 간의 갈등과 갈등 해소, 친화와 관계 변화 등 서사를 구성할 수 있는 의미요소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 잘 주워 담기만 해도 서사적 의미가 쉽게 구성될 수 있다. 서사 텍스트에서 서사적 의미작용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의미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본 논의에서 제안하는 서사적 의미작용은 이처럼 서사 텍스트에 국한하지 않는다. 서사적 의미작용은 범텍스트적 인지작용이자 의미화 작용으로 활동한다.¹⁸⁾ 거기에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독자가 등장한다. 서사적 의미요소가 미흡한 텍스트가 서사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은 변증부와 변론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성화의 산물이 바로 가능 세계이다. 가능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독자가 있다면 〈자기록〉이건 〈한중록〉이건, 어떤 텍스트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다.

3. 텍스트의 가능 세계와 고전의 재목적화

텍스트와 텍스트의 가능 세계 문제가 텍스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 세계는 텍스트를 쓰거나 읽는 사람들이 지닌 생산이나 해석의 스키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세계이다. 생산이나 해석의 스키마는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환경으로 그 진폭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한중록〉은 임오화변이라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과 결부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여러 장르로 재생산되었다. 이는 독자가 〈한중록〉을 자연스럽게

18) 안스가 닐링, 베라 닐링 엮음, 조경식 외 옮김,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18.

게 서사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키마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자기
 록>은 풍양 조씨라는 양반가의 여성이 쓴 가문과 결혼, 남편의 죽음과 투생
 에 대한 기록으로 지금까지는 연구자의 스키마로만 해석된 까닭에 일반
 독자를 추동하는 힘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텍스트의 변형
 결과나 빈도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2차 텍스트 생산의 동력으로 제
 안하는 것이지만 이를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필자가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의 가능 세계로 고전 텍스트를 읽을 수 있
 다고 보는 까닭은, 현대의 독자들이 고전과 역사를 읽고 이들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데 몰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그 가치를 독자 자신에게서 찾아
 보고자 했다. 독자들이 만들어내는 고전의 2차 세계는 독자로부터 도출된
 다. 독자가 만들어낸 2차 텍스트가 고전의 현대적 가치와 연관된다면, 결국
 독자에게서 고전의 가치가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해석자의 기억
 이나 지식으로 자리 잡은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사례들, 즉 스키마는 고전
 을 독자의 가능세계에 위치시키는 중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해석자는 텍
 스트의 행위자나 서술자, 서술 태도를 비롯하여, 화제나 주제 등 관련된
 것들을 자신의 기억 공간 속 전형¹⁹⁾이라는 스펙트럼 위해 해석 대상을 놓
 는다. 독자 기억의 전형, 지식 등은 텍스트의 해석 영역을 축소하여 의미나
 가치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 세계를 구성하여 텍
 스트에 새로운 해석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독자가 텍스트를 경험하면서
 더 안쪽으로 더 바깥쪽으로 나아가 의미작용을 확정하거나 배제하도록 함
 으로써, 텍스트를 재목적화하거나 재매체화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선택
 하는 것, 이러한 활동이 텍스트에 가치를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

19) 최용호, 『서사로 읽는 서사학-인지주의 시학의 관점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03쪽

다. 〈자기록〉, 〈한중록〉이 개별적 특성을 지닌 독자적 텍스트이므로,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목적화·재매체화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텍스트의 의미요소나 텍스트의 통제와는 별개로 해석자가 만들어내는 가능 세계가 텍스트를 재목적화나 재매체화하는 주체되는 것이다.

〈자기록〉과 〈한중록〉에 관련된 독자의 역사 인식은 중요한 스키마가 될 수 있다. 문화나 역사에 기댄 새로운 해석은 다른 독자의 가능 세계를 무한하게 자극한다. 문화나 역사에 대한 해석자들의 이해 지평이 가능 세계의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역사적 사건에 관해 가능 세계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미시적 관심으로 전환에서 더 넓게 확대된다. 인간의 경험과 경험에 대한 미시적 시선은 여러 개연성 넘치는 우연들을 가정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역으로 존재했던 개인에 대한 이해는 당대 사회문화적 특성과 함께 거시적인 것들을 의미심장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다수의 문화 콘텐츠가 거시적인 역사를 토대로 하는 고전들을 미시적인 방식으로 변형하였다면, 이미 미시적인 고전들은 어떤 방식으로 재목적화 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가능 세계를 넓힐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기록〉이나 〈한중록〉과 같은 과거의 기록들이 그 자체로 가치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나 텍스트가 의사소통의 산물이고,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의미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전이라고 불리는 개인적인 기록에 대해 대중화를 기대하는 확장적 접근을 외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참고문헌

- 풍양조씨, 『자기록-여자 글로 말하다』, 김경미 역주, 나의 시간, 2014, 1~279쪽.
- 혜경궁 홍씨, 『내 붓을 들어 한의 세월을 적는다, 한중록』, 이선형 옮김, 서해문집, 2003, 1~427쪽
- 혜경궁 홍씨, 『한중록』, 정병설 옮김, 문학동네, 2010, 1~487쪽.
- 김경미, 『『자기록』의 저자 풍양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21~146쪽.
- _____, 『가와 여성-18세기 여성 생활과 문화』, 여이연, 2012, 1~319쪽.
- _____, 『기억으로 자기의 역사를 새긴 보통 여성, 풍양조씨』, 『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240~261쪽.
- 김보현, 『<용비어천가>의 해석의미론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1~192쪽.
- _____, 『<한중록>의 발화에 대한 양태 분석』, 『여성문학연구』 32,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91~215쪽.
- _____, 『『자기록』, 삶과 죽음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267~296쪽.
- 김수환, 『사유하는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11, 1~490쪽..
- 박 경, 『『즈기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열부관과 여성의 대응』, 『여성과 역사』 19, 2013, 229~261쪽.
- 박옥주, 『풍양조씨의 『즈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307~318쪽.
-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 서사-『즈기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문학연구』 20, 고전문학학회, 2001, 239~271쪽.
- 이화형, 『<한중록>의 극적인 특성 연구』, 『동아시아고대학』 2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1, 251~278쪽.
- 정병설, 『<한중록>의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학회, 2008, 171~198쪽.
- 정은임, 『한중록 연구』, 국학자료원, 2013, 1~445쪽.
- 최기숙, 『자서전, 전기, 역사의 경계와 언술의 정치학-한중록에 관한 제안적 독법』, 『여/성이론』 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122~139쪽.

- 최성환, 『한중록의 정치사적 이해』, 『역사교육』 115, 역사교육연구회, 2010, 129~164쪽.
- 최용호, 『서사로 읽는 서사학-인지주의 시학의 관점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9, 1~220쪽.
- 홍인숙, 『『즈기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41~271쪽.
- 보그란테·드레슬러 공저, 『텍스트언어학입문』, 김태옥, 이현호 공역, 한신문화사, 1999, 1~408쪽.
- 안스가 닐링, 베라 닐링 엮음,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조경식 외 옮김, 한국문화사, 2018, 1~436쪽.
- 애벗. 포터. H, 『서사학 강의 - 이야기에 관한 모든 것』, 문학과 지성사, 2010, 1~464쪽.
- 에코. 움베르토, 『이야기 속의 독자』, 김운찬 옮김, 열린책들, 1996, 1~390쪽.
- 브룩스. 피터, 『플롯 찾아 읽기』, 박혜란 옮김, 강, 2011, 1~484쪽.
- 캘페퍼. 요나단, 『캐릭터 묘사의 인지문체론적 접근』, 『인지문체론』, 한국문화사, 2017, 375~414쪽.
- Rastier. François, *Meaning and Textuality*, (trans.) Prank Collins & Paul Perr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7, pp. 1~352.
- _____, *Sémantique interprétativ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7, pp. 1~276.

ABSTRACT

Recognition of the possible world and narrativity
in *HanJung-lok* and *Jagi-lok*

Kim, Bo-hyun

Readers' perception of classics as "interpretable text" means that they are restructured into the reader and their environment. This is to derive the value of classics through the subject of interpretation in the space and time of interpretation. Narrativity is a representative element that makes a text valuable. Narrativity refers to things that exist within specific narratives, that is, the driving force or premise that creates the narrative. The narrativity in text is not a genre; rather, it is a narrative element that readers find in the text, and a value that is found in a possible world.

Jagi-lok and *Hanjung-lok* are records(목록) in terms of naming. Even though the records include actors and events, which are deservedly narrative elements, it is the interpreter who converts them into a narrative. Some interpreters may recognize the narrative elements in *Jagi-lok* and *Hanjung-lok*, as the same, while others may view them as different. This paper stud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texts: the possible world that the reader derives from each text and, how the two possible worlds are different through the semantic action of the dialectics and dialogic in the texts. This paper examines the contributions of the reader's possible world to the repurposing of the classics.

Key Words *Hanjung-lok*, *Jagi-lok*, interpretative semantics, possible world, narrativity

논문투고일 : 2020.10.15
심사완료일 : 2020.10.29
게재확정일 : 2020.11.11